

내가 꿈꾸는 세상

지정대본(A)

<오디션대본>

※ 오디션대본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!

형진(남/20대), 미애(여/20대)

S#1 골목

형진과 미애가 사나이들을 따돌린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불만스러운 듯 미애 를 나무라는 형진

형진 「이게 무슨 꼴이야 ! 뭇 때문에 쫓겨 다녀야 해!」

미애 「.....」

형진 「학생이면 학생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해야지. 돈도 좋지만 정신차려 」

미애 「미 안 해」

형진 「 일단 뒤따르던 자식들 따돌렸으니까 이젠 괜찮을 거야. 빨리가」

미애 「고 마 워 」

뒤를 살피며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

S#2 골목 입구

한숨 돌린 듯 안심하고 걷고 있는 형진과 미애 앞에 길을 막아서는 사나이들. 놀라는 두 사람

사내1 「 숨박꼭질하자는거야 뭐야! 속 썩이지 말고 따라와 」

형진 「 당신들 누구야! 뭣 때문에 그래! 」

대답대신 주먹이 형진의 턱을 강타한다.

졸지에 맞고 나딩구는 형진

미애가 놀라 형진 곁으로 다가간다.

미애 「 괜찮아! 」

형진 「 보면 몰라 」

턱을 문지르며 일어나는 형진 . 서서히 다가오는 사나이들

미애 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? 」

사내1 「 우리형님. 괜찮은 분이야 아가씨가 필요하대 」

형진 「 잠깐! 」

형진이 떳떳한 자세로 사나이들 앞에 버티고 선다.

형진 「 꺼져! 」

사내1 「 뭐 꺼지라고 - 」

형진 「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 화나게 하지마 」

사내1 「 화나게 하지말라구 」

가소로운 듯 히죽거리며 다가서는 사나이들

기회를 엿보다 나약해 보이는 사나이 한명을 축구볼을 차듯 걷어찬다.

배를 움켜지고 찢찢매는 사나이 2

형진 「덤벼 ! 다 죽여 버릴 거야」

형진의 강렬함에 물러서는 사나이들

다시 한 발 강렬함으로 다가서자 하나 둘 물러서며 서로 눈을 마주치고 모습을 감추는 사나이들 -

모습을 감춘 것을 확인하고 걷어찼던 오른발을 움켜잡고 통증으로 빙그르 돈다.

미애 「왜 그래 ?」

형진 「보면몰라 잘못 찼단 말이야」

미애 「정말 웃겨」

형진 「웃긴다고 !」

미애 「그렇잖아. 불량배들을 단 한방에 보내 버렸잖아」

형진 「나도 한 방에 떨어 졌어」

턱을 만지는 형진. 흥미롭게 미소짓는 미애

형진 「조심해. 오늘은 위기극복은 했지만 그냥 있을 놈들이 아니야. 클럽아르바이트는 그만 두는게 좋을거야」

미애 「생각해 볼게. 오늘 정말 고마웠어」

형진 「고마운 것 알면 됐네 어서가」

미애 「괜찮겠어 !」

형진 「괜찮아」

절룩거리며 걷는 형진. 미애가 걱정스럽게 뒤 따른다. (F.O)